

[포ID-23] '2009 세계 천문의 해' 경과보고: 행사 부문

문홍규¹, 이서구¹, 이동주¹, 이경숙¹, 현성경¹, 김지혜¹,
윤선혜¹, 강영운², 양종만³, 박석재¹.

¹한국천문연구원, ²세종대학교, ³이화여자대학교

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행사분과에서는 연초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. 지난 해 말과 올 연초에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전야제, 해오름 공개관측행사에 이어 국내 공식개막식을 개최했으며,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국제 공식개막식에는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.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를 디자인했다. 4월초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2500여 개소에서 열린 100시간 천문학 캠페인에 참여, 국내 7개 대학과 34개 시민천문대 및 교육과학연구원, 2개의 국립과학관과 전국 30여 개 명소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.

또한 행사분과에서는 소아환자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과 음악회, 관측행사, 병원 로비 천체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“병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”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.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과 벽지 학교들을 찾아가 어린 학생들에게 망원경으로 달과 별, 행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. 이밖에 대한민국과학축전, 대한민국 별 축제,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, CMB 우주축제, 건우직녀 축제, “유니버설 페스타”, “우주로 공을 차다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.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에서는 어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09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.

[포ID-24]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시설을 이용한 교육·연구 현황 및 계획

이강환¹, 하상현¹, 강선아^{1,2}

¹국립과천과학관, ²한국천문연구원

2008년 11월에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에는 지름 25미터의 대형 Planetarium(천체투영관)을 비롯하여, 지름 1미터 광학망원경, 지름 7.2미터 전파망원경, 그리고 다수의 태양 및 중소형 망원경들이 설치된 천체관측소가 있다.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지난 2월 2009 한국천문올림피아드 겨울학교가 개최된 바 있고 이후에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의 실습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현재 천체관측소에서는 학교에선 신청하는 단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천체투영관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. 천체투영관과 천체관측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. 또한 천체관측소 망원경을 이용해서는 현재 CCD 테스트를 주제로 한 R&E 프로그램이 진행중이고,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 천체관측소 시설을 이용한 이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. 여기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시설들을 활용한 천문교육과 연구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.